

과학적 근거없는 광주시 '1가구 1인 검사' 혼란만 가중

시, 강제성 없는 캠페인... 전문가, 예산·인력 낭비 전형적 포퓰리즘 방역 포항시, 15만명 검사해 30명 발견... 순창군도 9200명 검사 확진자 없어

광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차단을 명분으로 진행 중인 '1가구 1인 전수검사'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는 강제성이 없는 캠페인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식 브리핑을 통해 "가족 중 한 명은 검사를 받아달라. 특히 외부모임이 잦은 시민은 돌아가면서 받아달라"며 1가구 1인 이상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전수조사를 진행한 타 지자체 사례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과학적 근거 없이 인력·예산 낭비하는 전형적 포퓰리즘 방역행정"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한달간 '1가구 1인 진단 검사'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감염병 전문가들은 실효성 없는 방역행정(광주일보 2021년 1월 26일자 1면)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광주의 총 가구수는 63만 3582세대로, 가구당 1명씩 검사를 받을 경우 지난 1년간 누적 검사 건수인 47만여건 보다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행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사를 위

한 인건비 등을 모두 제외하더라도 진단키트 비용으로만 최소 20억원(묵은 검사 기준)에서 최대 1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예산 낭비는 자적도 나온다.

가구당 1인 전수조사의 효과도 불분명하다. 광주시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 감염병 전문가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무작위 전수검사는 효과적이지도 않고, 사회경제적 비용과 예산 낭비가 크다. 특히 일선 의료진의 피로도만 가중될 뿐"이라며 "도대체 누가 전문가들과의 단 한마디 논의도 없이 이 같은 결정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지역이 이동이 잦은 일일생활권인 우리나라에서 대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가구당 전수조사로는 코로나19를 모두 잡아낼 수 없다"면서 "한 달간 이어지는 검사 과정에서 먼저 검사를 받았던 시민이 음성 판정 이후 감염된다면 기존 검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은 예산과 인력 낭비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방역'이라는 쓴소리도 내놨다.

한 방역 전문가는 "민선 지자체들이 무리한 전



3일 오전 광주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 차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에서는 개신교회와 비인가 교육시설, 성인오락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연세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수검사를 하는 것은 방역에 철저하다는 이미지를 쌓기 위한 불필요한 방역 행정일 뿐"이라면서 "당장 중단해야 하며, 새로운 방역행정을 발표할 땐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의 우려는 이미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타 지역 사례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1가구 1인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포항시의 경우 지난 1일까지 15만3000여명이 전수

검사를 했는데, 30명(양성률 0.02%)을 발견하는데 그쳤다. 포항시는 5명의 검체를 혼합 검사하는 방식(풀링)으로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데 1회 단가가 7만5000원으로, 총 검사비만 22억95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 계산하면 확진자 1명을 찾는데 드는 검사비로 7650만원이나 소모된 것이다.

앞서 전북 순창군도 주민 2만8000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서 9200명을 검사했는데, 확진자는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광주시는 강제성이 없는 캠페인성 방역행정인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선 보건소 관계자는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일선 방역 현장은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무작위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자는 식의 캠페인까지 전개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말했다.

영국 방송 5·18 다큐멘터리 방송... 5·18기록관·묘지 등서 제작

총괄감독 "한국 역사 소개 다큐에 민주화운동 주축될 것"

5·18 민주화운동의 전국화·세계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3일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영국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이날 영국의 방송사 '볼란트 미디어(Volant Media)'는 기록관과 5·18 민주묘지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볼란트 미디어'는 영국의 24시간 방송 채널

'이란 인터내셔널(Iran International)'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다. 총괄 감독은 영국 BBC에서 프로듀서 제널리스트로 활동하는 호세인 셰리프(Hossein Sharif) 씨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행을 통해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한국에 관한 역사, 경제, 문화, 자연환경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다큐멘터리다.

호세인 셰리프 총괄감독은 "한국의 역사를 전세계의 시청자들에게 설명하는데 유네스코 세

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민주화운동이 주축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인터뷰 이유를 밝혔다.

관련 취재영상은 영어와 이란어로 세계 각지에 방영될 예정이며, 한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시청 가능하다. 5·18기록관은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에 독일 국영방송작가 보도 하트비히(Bodo Hartwig) 씨의 인터뷰 및 자료조사 요청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5·18민주화운동 세계화 사업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정부, 방역조치 완화 여부 검토

"정치철세 막자"

정부가 이번 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상황을 검토한 뒤 일부 방역 조치 완화 여부를 검토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코로나19 환자) 상황이 평가해 너무 엄격하게 조치가 이뤄진 부분 중 일부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어 "거리두기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토론회를 진행했다. (개편) 논의는 아무래도 설 연휴가 끝나 뒤에 본격화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설 연휴 전이라도 일부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1면에서 계속

달당 후 10년(선거일 90일 전부터 소급하여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에 나서면 공천심사에서 최고 25% 감점을 부과한다"는 민주당 내부 규정을 거론하면서 "건의문을 낸 51명의 전남 도의원 중에는 탈당 전력이자 상당수"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잠재적 경쟁자들의 당 진입을 막거나 페널티를 부과해 차기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집단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불신임"을 놓고 민주당 일색인 전남도의회가 최근까지 패를 갈라 다툼을 벌여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국 자기 이익 쟁길 때만 한데 뭉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온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올 들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보다 갑절가량 많은 복당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원칙에 따라 복당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역 도의원들이 단대없이 복당 심사, 경선 룰 등에 관해 건의문을 중앙당에 제출하며 잡음을 유발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우리 당에서는 경선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 또는 타 정당 후보로 출마한 자는 검증 심사에서 예외 없이 부처적 처리하는 등 원칙을 지켜왔다. 복당을 남발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청장, 제1회 윤한덕 상 수상자 선정

응급의료체계 구축·발전 기여

정은경(사진) 질병관리청장이 '윤한덕 상' 첫 수상자로 선정했다. 전남대 의과대학 동창회 '윤한덕 추모위원회'는 광주 출신인 정 청장을 '제1회 윤한덕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창회는 정 청장이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하며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대 의과대학 출신인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설 연휴인 2019년

2월 4일 근무 도중 과로로 쓰러져 순직했다. 그는 순직 전 석 달간 평균 주 122시간을 근무했고 집에 1~2주에 한차례 들어가 3~4시간만 머물다가 돌아와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국가 응급진료정보망 구축, 응급의료 전용 헬기 및 권역외상센터 도입,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설립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윤 전 센터장이 2015년 메르스 확산 때 국립중앙의료원 메르스 대책반장을 맡아 이를 만에 음압 병



상을 만들어 메르스를 완전히 진압한 것은 지금도 유명한 일화다.

전남대 의대 동창회는 윤 센터장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동창회원 등 1700여명으로부터 총 5억6000여만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정종길 전남대 의대 동창회장은 "윤 센터장의 참 의료 정신을 이어가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윤한덕 상을 제정했다"며 "앞으로도 윤한덕 정신을 계승해 의료발전을 위한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투자 하실분

3억 이상

경매 낙찰된 특수물건
급매 / 부도직전 물건
경기 / 수도권 물건
수익률 좋음

(주)오천. 010-3605-5000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농성동 남양휴튼

농성동 시세차익 마지막아파트 (전세대 구.33평, 총 419세대)

청약통장 필요없음
전매제한 없음

지하철 더블역세권
숲 세권
원스톱학군

- ▶ 안방, 거실시스템에어컨 무상
- ▶ 중문 무상
- ▶ 발코니 확장비 무상

※ 코로나19로 홍보관은 방문예약제로 운영되오니 꼭 미리 연락주세요!

1800-1548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관련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업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고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433-8
2. 분묘가수: 1기
3. 개장사유: 매장에 의한 민원진
4. 개장방법: (가)유원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내 임의개장 (나)유원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내 임의개장
5. 안치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영락공원로 170 영락공원 1 추모관
6. 안치기간: 개장 후 안치완료부터 10년
7.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 처: 김해원(010-3613-6928)
9. 신고서 구비사항: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서에는 매장된 분묘주자의 관계 증명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것만때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묘는 이 공고에 갈음합니다.

2021년 2월 4일
공고인: 김해원

산행안내

2월 7일(일)

▲광주서산악회 2월 7일(일) 강원도, 평창군, 흥천군&계방산 1577.4m&한강지맥산행, 열주체육관 05:00, 동아병원 옆 05:05, 롯데백화점 05:10, 광주역 05:15, 문예후문 05:25, 비엔 주차장 05:30 * 다음카페 광주 kj산악회 ☎ 010 7794 6920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통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철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